

# ‘선문대할망’과 그 別稱\*

김순자\*\*

<차례>

- I. 들머리
- II. ‘선문대할망’ 이름
  - 1. 문헌 속의 ‘선문대할망’ 이름
  - 2. 설화 속의 ‘선문대할망’ 이름
- III. ‘선문대할망’ 이름 고찰
- IV. 마무리

## 국문요약

이 논문은 제주의 대표 설화 ‘선문대할망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이 ‘선문대할망·설문대할망·세명주할망’ 등으로 10여 가지가 혼효되어 불리는 것을, 제주 학 정립 차원에서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선문대할망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은 주인공 중심의 명칭과 소재 중심의 명칭으로 나눌 수 있다. 소재 중심의 명칭은 ‘선멩디할망·췌멩디할망·세멩주할망·설문대할망·설명두할망·설명지할망’ 등으로 나타나는데 찾기가 1~2회에 불과하다. 반면 주인공 중심의 명칭은 ‘선문대할망’과 ‘설문대할망’ 두 이름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 등으로 변용되거나 연구 자료 등에서 혼효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논문에서 혼효되어 나타나는 두 명칭 가운데 채록 설화

\* 이 글은 2010년 5월 15일 제주돌문화공원 주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설문대할망과 바다’라는 주제의 탐라문화연구소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국어학.

의 주인공 명칭으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어학적으로 앞선 명칭이라고 판단되는 ‘선문대할망’을 대표 이름으로 명명하기를 주장하였다. 또한 소재 중심의 명칭들은 ‘선문대할망’ 이야기의 중심소재인 명주에서 비롯된 명칭임을 어학적 근거를 들어 밝혔다.

주제어: 선문대할망, 설문대할망, 설화, 주인공, 소재, 명주

## I. 들머리

‘선문대할망’<sup>1)</sup> 이야기는 하나의 거녀담으로, “제주도의 지리적 조건에 부합되게 윤색되어 향토색을 농후하게 반영시킨 이야기”<sup>2)</sup>다. “단편적이면서도 신화의 전설화 내지 민담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제주인의 의식이 두드러지게 표출되어 있어서인지”<sup>3)</sup> 전파력이 아주 강하다. 어떤 화소로 이루어지든 ‘선문대할망’은 거녀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각각의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하여도 한편의 이야기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하다.

‘선문대할망’ 이야기가 언제부터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지리적인 조건에 맞게 그 이야기가 제주 전역에 걸쳐 다양하게 변용되어 나타난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문헌에 기록되었고, 지금도 그 이야기들은

- 
- 1) 필자는 2004년 석사논문 『濟州學 定立을 위한 用語 研究』에서 우후죽순으로 불리는 ‘선문대할망’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을 ‘제주학 정립’ 차원에서 ‘선문대할망’이라는 이름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선문대할망’을 대표 이름으로 설정해 놓고 논의하는데, ‘선문대할망’은 ‘선문대할망’에 포함하였다.
  - 2) 任東權, 『선문대할망 說話考-濟州島 民俗에 나타난 巨女談』, 『제주도』 17호, 제주도, 1964, 112쪽.
  - 3) 許椿, 『선문대할망 說話 論考-濟州島 巨女說話의 性格』, 『韓國文學의 通時的 省察』(전규태교수회갑기념논문집), 백문사, 1993, 537쪽.

윤색, 각색 과정을 거치며 전승되고 있다.

화소 못지 않게 이야기 속의 주인공 이름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선문대·선문데·선맹디·설문대·설명두·세명뒤·설명지·할망·마고할망·沙曼頭姑·雪曼頭姑’처럼 그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나 어떤 이름을 설화의 중심에 내세워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그동안 ‘선문대할망’은 구비전승과 문학의 수용, 스토리텔링 등과 관련해 연구되어 왔을 뿐 어학적으로 이름을 분석하거나 그 쓰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는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선문대할망’의 별칭들을 문헌 자료와 채록·연구 자료 속에서 찾아보는 한편 설화 자료를 근거로 문학 작품이나 연구 자료에서는 어떤 이름들이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제주학 정립 차원에서 주인공 이름 가운데 대표 이름을 무엇으로 통일해서 써야 하는지를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제시하려고 한다.

## II. ‘선문대할망’ 이름

‘선문대할망’ 이야기가 골격을 갖춰 이야기로 문헌에 기록된 것은 李源祚의 『耽羅誌草本』 권2 ‘奇聞’조에 수록된 ‘沙曼頭姑’가 처음이다. 한자로 기록된 이 이야기는 오늘날 전승되는 ‘선문대할망’ 이야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후 담수계에서 출간한 『增補耽羅誌』에서도 ‘선문대할망’ 이름이 등장한다. 이에 앞서 張漢喆의 『飄海錄』에도 ‘선문대할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름이 등장한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선문대할망’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조사, 채록된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다. 장주근·진성기·임동권·임석재·현

용준·김영돈·현길언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조사, 채록되는 한편 연구되었다. 이 이후에는 문헌과 구술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이야기로 각색되고, 시로, 소설로, 동화로, 그림책 등으로 변용되며 ‘선문대할망’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또 학지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선문대할망’ 이야기가 연구되고 있다. 한편 음악과 연극·미술 등의 예술작품으로 승화되어 대중에 확산되고 있다. ‘선문대할망’은 또 제주를 창조한 신으로 신격화되어 체육대회 등에서도 매스게임의 소재로 그 형상이 만들어지는 등, 제주를 상징하는 여신으로 관념화 되며 제주 지역의 독특한 문화 콘텐츠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제주돌문화공원은 ‘설문대할망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 ‘설문대도서관’, ‘설문대문화센터’, ‘설문대식당’과 같이 건물 이름이나 가게 이름에도 등장하고 있다.

### 1. 문헌 속의 ‘선문대할망’ 이름<sup>4)</sup>

‘선문대할망’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문헌은 李源祚의 『耽羅誌草本』이다. 이 문집 권2 ‘奇聞’ 조에 보면 ‘沙曼頭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上古有一神女號曰沙曼頭姑身長幾與天齊手倚漢挈山頂足躡滄海而弄波常自言曰此土人製我一衣則我必連橋於大陸使徒步往來云而以一島之力終不能製其衣橋果不成州東新村有巨人跡印在巖石上至今稱曼姑足跡云.<sup>5)</sup>(굵은 글씨 필자)

4) 여기에서 ‘문헌 속의 이름’이라고 하면 구술자나 조사자의 이름 없이 ‘선문대 이야기’가 문헌 속에 등장한 경우를 말한다. 줄거리가 없더라도 ‘선문대할망’과 연관 있다고 판단되면 함께 소개하였다.

5) 李源祚, 『耽羅誌草本』(1843년 경),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影印本, 1989.

이 글의, “옛날에 한 신녀가 있었는데, 이름이 沙曼頭姑라고 불리며…… 지금도 주 동쪽 신촌에 거인의 발자취가 암석에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만姑의 발자취’라고 말한다.”는 대목에서 ‘선문대할망’ 이름이 한자로 ‘沙曼頭姑’, 줄여서 ‘만姑’라고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張漢喆의 『飄海錄』 1771년 정월 초 5일 기사에는 ‘洗麻叡婆’와 ‘洗麻姑’, ‘洗麻’가 등장하는데 이 또한 ‘선문대할망’을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보인다.

……或起拜向漢拏而祝曰白鹿叡子活我活我洗麻叡婆活我活我盖耽羅之人諺傳仙翁騎白鹿遊于漢拏之上又遼傳古之初有洗麻姑步涉西海而來遊漢拏云古今者所以祀於活洗麻白鹿者無所控訴而然也<sup>6)</sup>(굵은 글씨 필자)

위의 기사의, 바다에 표류하던 제주민은 한라산이 보이자 한라산을 향해 절을 하며 “백록선자(白鹿叡子)님, 살려주소. 살려주소. 선마선과(洗麻叡婆)님, 살려주소. 살려주소.”라는 대목과, “옛날에 선마고(洗麻姑)가 걸어서 西海를 건너와서 놀았다는 전설<sup>7)</sup>”이라는 대목을 통해 이 전설은 ‘선문대할망’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으며, 어부들은 여기에 보이는 ‘洗麻叡婆’와 ‘洗麻姑’를 신앙의 대상으로 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54년 담수계에서 발간된 『增補耽羅誌』에도 ‘선문대할망’ 이야기가 국한문으로 수록되어 있다. 『增補耽羅誌』의 이야기는 『耽羅誌草本』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나 ‘할망’ 이름이 ‘沙曼頭姑’에서 ‘雪曼頭姑’로 바뀌었고, 줄여서 ‘만姑’라고 부르고 있다.

6) 張漢喆의 『飄海錄』의 1771년 정월 초 5일 기사 참조.

7) 張漢喆 著, 鄭炳昱 譯, 『飄海錄』, 汎友社, 1976, 76~77쪽 참조.

上古에 有一神女하니 曰 雪曼頭姑라 身長이 與天齊하야 手倚漢拏山頂하고 足攝滄海而弄波하야 常 言曰此土人이 製我一裊則我必連橋於大陸하야 便徒步往來云而以一島之力으로도 終不能製其衣裊하야 橋梁不成이러라 州東新村에 有 巨人跡이 印在岩石上하니 至今稱曼姑足跡云이라.<sup>8)</sup>  
(굵은 글씨 필자)

이들 자료에 등장하는 ‘선문대할망’의 이름 ‘沙曼頭姑’와 ‘雪曼頭姑’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으나 여기에서 ‘姑’는 ‘삼신할망’, ‘조왕할망’, ‘할망당’의 ‘-할망’처럼 신의 이름이나 신당 이름에 붙어서 존칭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曼姑’는 ‘麻姑’와 음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마고’처럼 여신을 존칭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 아닌가 한다. “‘마고’는 ‘청태산 마고할미’라고 전하는 중국 도교의 신선의 이름이 민간에서 관용되어온 것으로 여겨”<sup>9)</sup>진다. ‘曼姑’ 즉, ‘마고할미’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선문대할망’ 역시 마고 이야기의 한 유형이 아닌가 한다. 崔溥의 ‘耽羅詩’<sup>10)</sup>의 ‘麻姑’와 金尙憲의 詩<sup>11)</sup>에 등장하는 ‘麻姑’도 ‘선문대할망’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sup>12)</sup> 현용준(1976)이 표선면 표선리에서 채록한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도 ‘마고할망’이다.

이상의 문헌 자료를 보면, 오늘날 전해지는 ‘선문대할망’ 이야기의 골

8) 淡水契 편, 『增補 耽羅誌』, 1954, 273쪽.

9) 장주근, 『풀어 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2000, 19쪽.

10) 金尙憲의 『南槎錄』 卷 1 참조. 35절 중 33번째 시. 我來得觀神仙宅 採了天台劉院藥 願學麻姑看海桑 應將此身壺中托.

11) 앞의 책 권 2 26일 기사 참조. 試拔愁城按酒兵 當杯休起故鄉情 羅紈狎座留人醉 星漢低簷滿意清 官舍橘林秋後色 拏峯笙鶴夜來聲 何緣共着麻姑老 坐見桑田極望平.

12) 金順子, 『濟州學 定立을 위한 基本 用語 研究』, 2004, 31쪽.

격 속에 이름이 전해진 것은 1843년의 이원조의 글에서이지만, ‘마고’, ‘선마선과’ 등이 ‘선문대할망’이라고 보면 ‘선문대할망’ 이야기는 1487년 이전부터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문헌 속의 ‘선문대할망’ 이름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문헌 속의 ‘선문대할망’

저자/출처	이름	연대	비고
최부/탐라시	麻姑	1487년 9월 이후	김상헌 『남사록』과 이원조의 『탐라지』에 시를 쓴 배경과 시 35절 소개됨
김상헌/남사록	麻姑老	1602	
장한철/표해록	洗麻姑, 洗麻叡婆, 洗麻	1771	
이원조/탐라지초본	沙曼頭姑, 曼姑	1843년 경	조천읍 신촌 지명 나옴
담수계/증보탐라지	雪曼頭姑, 曼姑	1954년	

## 2. 설화 속의 ‘선문대할망’ 이름

### 1) 채록 자료 속의 이름

‘선문대할망’의 우리말 이름들은 1950년대 후반부터 도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조사·채록한 구비전승설화 자료와 연구물 속에서 확인된다.

발표자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선문대할망’에 대한 구비 자료는 張籌根(1957)의 『濟州島 女神考』<sup>13)</sup>에서 처음 보인다. 장주근은 이 논문에서 ‘선문대할망’을 천지 창조신으로 소개하면서, “도내 동편에서는 선

13) 張籌根, 『濟州島 女神考』, 『濟州文化』(창간호), 全國文總濟州支部, 1957, 37~38쪽.

문데할망, 서부에서는 설문디할망 또는 설물데할망<sup>14)</sup>이라 하는 것 같고, 神房 高奉仙 영감의 노래 録音에는 선맹디할망<sup>15)</sup>이라고 발음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濟州島 女神考』에는 모두 14개 유형의 ‘선문대할망’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주근은 논문에서 ‘선문대할망’ 이름을 ‘선문데할망’이라고 표기해 놓는 한편 논문의 부제도 ‘선문데할망’이라고 달았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한 ‘선문대할망’의 이름을 ‘선문데할망’으로 통일해 놓은 것이다.

2년 후에 발표된 진성기의 『제주도설화집』(제1집)에는 『설문대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신화편에서 소개하고 있다. 『설문대할머니』는 다른 조사자들의 설화 유형이 삽화 형식으로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소개한 것과는 달리 토막 설화를 엮어서 한편의 이야기처럼 꾸며낸 점이 다르다. 주인공 이름도 다른 설화 속 주인공이 ‘-할망’인 것과 달리 표준어로 ‘-할머니’로 표기했다. 첫머리에 “옛날 어느 곳에 ‘사마고과’라는 설문대할머니가 살고 있었다.”<sup>16)</sup>는 이야기 속에 또 ‘설문대할머니’의 별칭으로 ‘사마고과’가 등장하는데 ‘사마고과’는 한자명 ‘사만두고’(沙曼頭姑) ‘선마선과’(洗麻叡婆), ‘선마고’(洗麻姑) 등에서 변용된 한자 이름으로 보인다.

1964년에 발표된 任東權의 논문 『선문대할망 說話考』(부제 濟州島 民俗에 나타난 巨女談)에는 8개 유형의 ‘선문대할망’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두 ‘선문대할망’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임석재<sup>17)</sup>는 1971년과 1972년에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루방과 설

14) ‘설문데할망’은 문맥의 앞뒤 정황상 ‘설문데할망’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5) 張籌根(1957), 앞의 책, 37쪽. “……예한로 영주산 저물기 당해서 선맹디할망으로 논하면 그물기 데러사서 육지로 내조 드리노이주마 하시다가 백명지를 없어 예시건 못하니 드리 못노아서 일월산신 처서님 불공입내다.” 구좌읍 평대리 高奉仙 구송.

16) 진성기, 『제주도설화집』, 제주도관광안내소출판부, 4292(1959), 162쪽.



문대할망」 두 편을 채록했다. 임석재가 수집한 두 편의 설화는 편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진성기의 채록 설화와 마찬가지로 내용이 ‘정제’<sup>18)</sup> 되어 줄거리가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설문대할망은 ‘선문대할망, 설명주할망, 세명뒤할망, 쉼뎡디할망’이라고 한다.”고 하여 ‘선문대할망’ 이름이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다각적으로 변용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현용준(1976)은 『濟州島傳説』<sup>19)</sup>에서 「선문대할망」이라는 제목으로 18개의 관련 이야기를 채록해 소개하고 있다. 1974·75년에 채록된 ‘선문대할망’은 구좌 김녕, 제주시 노형, 성산 시흥, 성산 고성, 안덕 화순, 표선 표선, 한경 고산 등 7개 지역에서 수집된 것으로, ‘선문대할망’ 4회, ‘설명두할망’ 5회, ‘설문대할망’ 2회, ‘마고할망’ 2회, 별칭으로 ‘세명뒤, 쉼뎡디, 설명대, 설명지할망’이 함께 소개되고 있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할머니’라고 해놓고 이야기를 전개한 경우도 5차례나 되었다. ‘할머니’라고 쓴 경우는 한 제보자가 여러 유형의 이야기를 전개할 때 사용하여 이름이 생략된 경우다. 현용준은 18개 유형의 이야기 주인공 대표 이름으로 ‘선문대할망’을 내세웠다.

한편 현용준·김영돈(1980·1981)이 조사·채록한 『韓國口碑文學大系』(9-1, 9-2)에는 각각 1편씩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모두 ‘설문대할망’으로 기록하였고, 제주도(1985)에서 발간한 『濟州道傳説誌』에는 8개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가운데 1개는 「선문대할망의 한라산 창조」라

17) 任哲宰, 『韓國口傳說話』(全羅南道 篇, 濟州道 篇), 평민사, 1994(1992), 277~280쪽.

18) 위의 책, 12쪽. 임석재는 서문에서 “현지인이 들려주는 설화를 녹음하고 이를 필사한 후에, 중복된 서술·서술의 전후도착·우연적 발생사항 등을 정제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설문대할망’ 이야기도 조사자의 의도대로 편집,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 玄容駿, 『濟州島傳説』, 瑞文文庫, 1976, 27~32쪽.

는 제목으로 제보자 없이 조사자들에 의해서 정제된 것이고, 나머지 7개는 성산 시흥, 제주시 이도2동, 구좌 서감녕, 성산 고성 등 4개 지역에서 조사된 이야기로 「선문대할망」(Ⅰ~Ⅳ)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다. ‘선문대할망’이 등장하는 것이 4회, ‘설명두할망’ 2회, 별칭으로 ‘세명뒤할망’이 ‘설명두할망’과 함께 소개되고 있는 것이 1회, 이름 없이 ‘할머니’라고만 된 것이 1회이다.

김영돈(1985) 등이 조사·채록한 『濟州說話集成』(1)에는 2개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모두 ‘설문대할망’으로, 진성기(2001/1959 개정판)의 『신화와 전설』에서는 3개의 이야기가 ‘설문대할망’으로 轉寫하고 있다.

표선리 원로회(1996)가 낸 『表善里鄉土誌』에는 홍두반 심방이 구송한 표선리 당캐 포구의 해신당 당신화에 ‘선맹디할망’이 등장한다. ‘선맹디할망’은 표선리 당캐 포구의 해신당 당신으로 좌정하여 어부와 해녀들의 안녕과 부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신성시되고 있다.

필자도 지난 2004년 여름에 구좌읍 송당리에서 ‘세명주할망’이라는 이름으로 ‘선문대할망’ 이야기를 수집했다. 그때 제보자는 1932년 생의 허순화인데, 그는 “어릴 때 들을 때는 ‘설문대’가 아니라 ‘세명주할망’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세명주(세명주)할망’은 또 심방이 송당계 본풀이를 노래할 때 첫머리에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다.

“웃손당 금백주 셋손당 세명주 알손당 소로소천국, 아들이기 열여덟 딸아기 스물여덟 손지방상 삼백일흔여덟. 이 말은 웃손당(上松堂里)의 신은 금백주이고, 셋손당(中松堂里)의 신은 세명주이며, 알손당(下松堂里)의 신은 소로소천국”<sup>20)</sup>에서 알 수 있듯이 ‘세명주할망’은 구좌읍 중송당리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었다가 설화의 주인공으로 남아 있는 경

20)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200쪽에서 재인용.

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허순화는 ‘세뎡주할망’ 전설을 이야기해주면서 “옛날 사람들이 없으니까 ‘설문대할망’이라고 한다.”며 ‘할망’ 이름의 정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허순화의 지적은 ‘남의 이름은 함부로 고쳐 불러선 안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예로, 참고할 만하다.

필자가 채록한 ‘세뎡주할망’ 전설을 조사 당시 그대로를 여기에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제보자:** 경헌디 드리에 그 저 설문대할망이엔 허연 허염젠 현 말은 들언.

**조사자:** 아 드리에서. 아니 거기서 설문대. 드리 저쪽 그 돌박물관?

**제보자:** 으. 경헌디 그게 설문대가 아니고, 옛날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을 땐 세뎡주할망, 세뎡주할망 해놔주게.

**조사자:** 세뎡주할망?

**제보자:** 세뎡주할망. 계난 요디 상당히 신기헌 디가 있어놔주. 이 질 허젠 허난이 저 그 돌을 완전히 집 높이 가차운 돌을, 세 덩어린 계난 솟덕엔 허연. 그게 그 할망이 그디서 냄비 앓져난 디엔 허메.

**조사자:** 아, 그 동네 이름은 뭐우과? 그 큰 돌 있어난디.

**제보자:** 시덕앗인빳.

**조사자:** 아 덕이 세 개 앓앗텐 허영?

**제보자:** 그 돌이, 돌도 그냥 그자 귀난 돌도 아니고 둥그런현 돌이라. 완전 둥그런. 둥그런현 돌이 경 신기헌 그 돌이 춤 유명했주. 그 돌이 서시민 유명한 돌이주게. 그 할망이 이제이 오름도 덩기명 후 흥 갈래죽 거려는 게 오름이 경 뉜 거다고 해. 육지허곡 제주허곡 드리를 놓아 줘센 허난 이제 뎡지를 아흔아홉 빌을 들연에 이제 헌디. 처지힐 게 죽안.

**조사자:** 으. 처지는 뭐우과?

**제보자:** 처지엔 허민이 속웃이 영 허영근에이 영허영 이것도 큰 것 영허영 오그리게 뉜 거주게. 그리민 이거는 베 가는 디가 뉜고 이디는 가달이 되는 거라. 영허민 처질 크쟁허게 뉜어야 힐 거 아니라. 이제도 속곳은 계속 벌막작 들곡 해놔주게.

**조사자:** 벌므작?

**제보자:** 벌므작도 들앙 속곳을 멘들야. 옆의는 벌므작을 돌아서. 이 속곳을 허당도 이디 처지 이디 험게 아흔아홉 빌을 들어도, 아흔아홉 동 들어도 처지를 못헤연 내부난 육지허고 제주허고 드릴 못 낫젠 허민. 게난 할망이 진짜 유명한 할망이주. 머리가 쉬은 대 자간 무신 멧 자고 우린 계속 들어신디. 이거는이 옛날 사람들이 엇어부난 설문대할망이여. 우리는 어린 때부터 들은 게 세맹주할망. 송당에 그디는 시덕앗인빳. 시 덕이 진짜 유명한 돌이 엇어났지. 그 돌이 서신디 진짜 유명한 거주게. 그 돌이 어디 가볼곡 어떻게 부수닥질 헤부러주.

**조사자:** 거기서 그 세맹주할망이?

**제보자:** 냄비 앓전 뿔 꿰여 먹어났다.

**조사자:** 아. 시덕앗인빳. 지금도 잇어예?

**제보자:** 시덕앗인빳은 지금도 잇주. 빳이름이 시덕앗인빳. 그 질허곡 시덕 앓인 디가 이 거는 질이민 이만이 허게 시덕을 앓져졌주게. 경헌디 그냥 질을 늘르젠 허난, 옛날은 질을 늘르젠 허난 시덕앗진빳이 다 들어간. 그런 옛날 전설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

위의 ‘세맹주할망’ 설화를 보면, ‘세맹주할망’은 흙 한 ‘갈레죽’(나무로 만든 삼) 떠놓은 것이 오름이 되고, 육지와 연결해주는 대가로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는데 명주 아흔아홉 필을 들였지만 ‘처지’할 부분이 부족해 다리를 놓지 못했다는 줄거리로 보아 오늘날 전해지는 ‘선문대할망’ 이야기와 궤를 같이한다.

‘선문대할망’ 이름이 등장하는 설화 속의 이름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채록 자료 속의 ‘선문대할망’

출 처	이 름	채록 연대	채록 지역	비 고
장주근, 『제주의 여신고』 (1957)	선문대할망	1957	채록 지역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제주의 여신고』 논문 속에는 14개의 유형의 ‘선문대할망’ 이 야기가 등장하는데 ‘선문대할망’ 의 별칭으로, ‘설문대할망, 설문 대할망, 선맹대할망’이 보임.
진성기, 『제주도설화집』 (1959)	설문대할머니	1959	안덕 회순	
장주근, 『한국의 신화』 (1961)	선문대할망	1960년 이전 채록한 것으로 보임	서귀포, 한림읍, 구좌 송당 안덕 상창, 중문 강정, 표선면, 한경 관포에서 채록	『한국의 신화』 속에는 모두 12 꼭지의 이야기를 1. 할망의 크기, 2. 할망이 한 일, 3. 기타로 나눠 지역과 제보자를 밝혀 수록해 놓고 있는데, ‘선문대할망’을 대 표 이름으로 부여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선문대할망’ 이라는 표현은 구좌 송당에서 채록한 이야기 속에 1번 등장하 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할망’이 라고 표현했다.
임동권, 『선문대할망 說話考』(1964)	선문대할망	1964년 이전에 채록	등장 지명: 한라산, 성산, 법환, 송당, 세화, 안덕, 백록담, 용연, 물장오리 등	8개의 이야기 모두 ‘선문대할망’ 으로 되어 있음.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1992/1994)	설문대할망	1971·72년 채록	제주시 이도2동, 성산 신흥	‘설문대할망’ 설화 속에 ‘선문대할 망, 설명주할망, 세명대할망, 쉼 맹대할망’이라는 이름도 등장함.
현용준, 『제주도전설』(19 76)	선문대할망	1975. 2. 25.	구좌 김녕	
	선문대할망	어렸을 때 들은 것을 재현해 정리	제주 노형	내용에 따라 삽화 형식으로 4개 로 정리. 2개는 ‘선문대할망’, 2 개는 ‘할망’이라고 되어 있음.
	선문대할망	어렸을 때 들은 것을 재현해 정리	제주 노형	
	설문대할망	1975. 2. 28.	성산 시흥	

	설명두할망	1974. 10. 19.	성산 고성	7개의 이야기를 삼화처럼 정리됨. 이중 2개의 이야기에는 '할머니'로 표기되었고, 1개는 '설명두할망'과 '세명뒤할망'이 함께 등장하고, 또다른 이야기는 '설명두할망' 외에 '세명뒤할망, 췌명뒤할망, 설명대할망'이라고도 한다고 부연설명하고 있음.
	설문대할망	1975. 3. 4.	안덕 화순	
	마고할망	1975. 3. 2.	표선 표선	3편의 이야기 중에 1개는 '할머니'로만 나타남. '마고할망'은 '설명지할망'이라고도 함.
	설명지할망	1975. 3. 2.	표선 표선	'마고할망'의 별칭으로 소개됨.
	세명뒤할망	1974. 10. 19.	성산 고성	성산 고성에서 채록한 '설명두할망'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 2차례 이름이 보임.
	췌명뒤할망	1974. 10. 19.	성산 고성	성산 고성에서 채록한 '설명두할망'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름임.
	설명대할망	1974. 10. 19.	성산 고성	성산 고성에서 채록한 '설명두할망'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름임.
	선문대할망	1975. 12. 19.	한경 고산	
* 『제주도전설』에서는 '선문대할망'을 대표 이름으로 사용				
『한국구비문학대계』(1980·1981)	설문대할망	1980. 11. 23. 1981. 11. 23.	구좌 김녕 제주 오라	
	선문대할망	1983		제보자 없이 '선문대할망의 한라산 창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가 소개됨.
『제주도전설지』(1985)	선문대할망	1983	성산 시흥	
	선문대할망	1983	제주시 이도2동	
	선문대할망	1983	구좌 서김녕	
	설명두할망	1983	성산 고성	'선문대할망' 제목으로 '설명두할망'과 '세명뒤할망'이 같이 나옴. 한 제보자에 의해 4개의 유형의 이야기 가운데 1가지임.

	세명뒤할망	1983	성산 고성	‘선문대할망’ 제목으로 ‘설명뒤할망’과 ‘세명뒤할망’이 같이 나옴.
	할머니	1983	성산 고성	한 제보자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여서 ‘할머니’라고만 되어 있음.
	설명뒤할망	1983	성산 고성	
	선문대할망	1983	성산 고성	
『제주도전설』에는 모두 8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개는 제보자 없이 각색한 내용이고, 나머지 7개는 성산 시흥, 제주시 이도2동, 구좌 서갑령, 성산 고성 등 4개 지역에서 조사된 내용으로 모두 ‘선문대할망’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음. 성산 고성에서는 4개의 이야기를 묶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선문대할망, 설명뒤할망, 세명뒤할망, 할머니’라는 이름이 등장함.				
『제주설화집성』 (1985)	설문대할망	1983. 2. 12. 1983. 3. 19.	애월 고성 성산 신평	
『표선리향토지』 (1996)	선명뒤할망	1996	표선 표선	표선리 당개 해신당 당신. 흥두반 심방 구송 자료.
진성기, 『신화와 전설』 (2001)	설문대할망	1958. 8.	안덕 화순	이 책에는 두 편의 ‘선문대할망’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편은 체록연도와 지역, 제보자가 나와 있으나 한편은 제보자만 나와 있음.
김순자	세명주할망	2004	구좌 송당	‘세명주(세명주)할망’은 송당계 본풀이를 노래할 때 중송당리에 좌정했던 신의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함.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선문대할망’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전설, 민담, 신화의 요소를 아우르며 전승되어 왔다. 李成俊(1990)은 ‘선문대할망’이 많은 별칭을 갖고 있는 이유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했다. “시간적으로는 ‘설문대할망’ 설화가 신화·전설·민담 요소를 다 포괄하고 있는 특이형 설화로서 오래 전에 형성되어 전달되는 과정에서 명칭이 조금씩 달라졌고, 공간적으로는 널리 퍼져 있어 많은 사람의 입에 거치면

서 그 이름이 달라졌다.”<sup>21)</sup>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이유를 별칭이 많은 ‘고종달설화’와 민요의 ‘맷돌·방아노래’를 또 다른 근거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채록 당시에는 ‘선문대할망·세명뒤할망·설명지할망·설문대할망·마고할망·세명주할망’ 등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으나 채록자에 따라서 ‘선문대할망’과 ‘설문대할망’ 두 가지 중 하나를 대표 이름으로 설정하고 설화를 소개하고 있다. 장주근·임동권·현용준은 ‘선문대할망’, 진성기·임석재는 ‘설문대할망(할머니)’을 중심에 놓고 설화를 소개하고 있다.

반면 현용준 등이 참여해서 소개한 『제주도전설지』(1985)에는 ‘선문대할망’, 『한국구비문학대계』(1980·1981)와 『제주설화집성』(1985)에는 ‘설문대할망’ 이름을 중심에 놓고 설화를 소개하고 있어 두 이름이 혼효 양상을 띠고 있다.

## 2) 연구물 속의 이름

렇다면 연구자들은 ‘선문대할망’ 이름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 논제에 나타나거나 내용 속에 ‘선문대할망’ 이름이 등장한 논문 몇 가지를 보자.

앞에서도 살폈지만 장주근·임동권은 ‘선문대(선문대)할망’을 대표 이름으로 『濟州의 女神考』와 『선문대할망 說話考』라는 논문을 1957·1964년에 각각 발표했다. 許椿<sup>22)</sup>은 『선문대할망 說話 論考』에서 ‘선문

21) 李成俊, 「설문대할망說話 연구」, 『國文學報』十集,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90, 57~58쪽.

22) 許椿, 앞의 논문, 537쪽.



대할망’으로, 李成俊<sup>23)</sup>은 「설문대할망 說話 연구」에서 ‘설문대할망’을 대표 이름으로 잡고 논문을 작성했다. 문영미(1998)는 「설문대할망 설화 연구」를, 정진희(2009)는 「제주도 구비 설화 <설문대할망>과 현대 스토리텔링」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는 육지 출신(장주근·임동권·허춘)이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의 연구 논문에서는 ‘선문대할망’이 대표 이름으로, 제주 출신(이성준)과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논문에서는 ‘설문대할망’이 대표 이름으로 올라 있다. 뒤에서도 확인되겠지만 ‘선문대할망’을 내세운 논문은 채록 당시 ‘선문대할망’이라는 이름의 빈도를 존중한 결과로 보이고, ‘설문대할망’을 내세운 논문은 1990년대 이후 ‘선문대할망’ 설화가 문학 작품이나 무대 예술로 승화되면서 ‘설문대할망’이라는 이름이 대중성을 확보해 설화의 주인공 이름으로 세력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세력화는 곧 ‘선문대할망’을 대표 이름으로 내세워 설화집을 냈거나 논문을 썼던 학자들조차 자신의 다른 저서에서는 ‘설문대할망’으로 표기하게 했다. ‘선문대할망’ 이야기를 처음 채록해 소개했던 장주근은 자신의 논문 「濟州의 女神考」에서 ‘선문대할망’으로 표기했다가 1969년에 발표한 논문 「제주도 천지 창조 설화의 문화영역성」<sup>24)</sup>에서는 ‘설문대할망’이라고 적고 있다. 또 2000년에 출간한 『풀어 쓴 한국의 신화』에서는 ‘선문대할망’을 내세워 혼효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용준(1976, 1991)은 『제주도전설』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발간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선문대할망’을 표제어로 올려 설화를 소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신의 저서 『제주도 사람들의 삶』(2008)과 제주도 디지털문화대전(2007)에서는 ‘설문대할망’이라는 제목으로 설화를

23) 李成俊, 앞의 논문, 57~58쪽.

24) 장주근, 「濟州島 天地創造 說話의 文化領域性」, 『제주도』 38호, 1969, 150~434쪽.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현설(2006)은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속에서 ‘선문대할망’과 ‘설문대할망’을 혼효해서 글을 쓰고 있어 작금에 와서도 ‘선문대할망’을 소재로 해서 글을 쓰는 연구자들조차 ‘할망’의 이름을 혼효해 쓰고 있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선문대할망 설화’ 연구자들이 ‘할망’ 이름을 혼효해 쓰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설화 속 주인공 이름이 ‘설문대할망’으로 대중화되면서 연구자들도 대중들이 쓰는 용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작품집 속에서의 이름

문학 작품 속에서 ‘선문대할망’이 등장하는 것은 제주 출신 소설가 오성찬(1988)의 단편소설 『구룡이 삼촌 연보』에서 ‘설문대할망’이 소설 작품으로 변용되면서부터다. 이어 문충성(1993)이 시집 『설문대할망』을 상재하면서 『설문대할망』을 제목으로 한 시를 소개했고, 소설가 고은주(2005)는 장편소설 『신들의 황혼』을 통해 ‘설문대할망 설화’를 차용하면서 ‘할망’ 이름을 ‘설문대할망’으로 적고 있다.

이어 아동문학가 송재찬(2007)·장영주(2009)는 『설문대할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책과 동화책을 상재했고, 도외출신 아동문학가 이미애(2006)·진은진(2007)은 『선문대할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책을 통해 ‘선문대할망’ 설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문학 작품 속에서는 설화의 주인공이 ‘선문대할망’과 ‘설문대할망’ 두 가지로 혼효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도내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는 모두 ‘설문대할망’으로, 도외 출신 아동문학가는 ‘선문대할망’을 설화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점이 주목된다.

김순이(2001)는 ‘선문대할망’ 설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한 설화집 『제주도신화·전설』(1)에서 주인공 이름을 ‘설문대할망’으로 적고 있어, 제주 출신 작가들 사이에서는 ‘선문대할망’보다는 ‘설문대할망’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 속에 ‘설문대할망’ 설화가 수용되면서 그 이름이 대중성을 확보한 점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 4) 기타 자료 속의 이름

‘선문대할망’은 설화나 문학 속의 주인공 이름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다. ‘선문대할망’은 소재로 음악 미술 연극 제례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소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건물명과 식당 상호에 이르기까지 ‘설문대할망’ 이름이 차용되고 있다.

‘할망’ 이름은 1998년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행사에서 ‘설문대할망’ 형상이 소개된 이후에 각종 공연물과 전시물, 작품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 여성을 상징하는 문화콘텐츠로 ‘설문대할망’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설문대할망 설화’를 차용해 쓰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주돌문화공원의 ‘설문대할망제’다. 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도서관’, ‘설문대식당’ 등의 건물 이름과 상호 등에서도 ‘설문대할망’ 이름이 쓰이고 있다. 즉 행정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문학 작품이나 공연물 등에서 ‘설문대할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설문대할망’이 당초 빈번하게 쓰이던 ‘선문대할망’ 자리를 이어받아 설화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다.

### Ⅲ. ‘선문대할망’ 이름 고찰

‘선문대할망’의 별칭 가운데 제주 사람들이 직접 구전해주는 이름들은 ‘선문대할망·설문대할망·선문대할망·설명두할망·마고할망·설명지할망·설명주할망·세명뒤할망·췌멩디할망·세명주할망·설명대할망·선멩디할망’ 등이다. 이 이름들은 주인공 중심의 명칭과 명주라는 옷감을 소재로 한 명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주인공 중심의 명칭

선문대(테)할망----12회

설문대할망-----7회

- 소재 중심의 명칭

선멩디할망-----1회

췌멩디할망-----1회

세명주할망-----1회

세명뒤할망-----2회

설명대할망-----1회

설명두할망-----3회

설명지할망-----1회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 중심의 명칭인 ‘선문대(테)할망’이 12회, ‘설문대할망’이 7회로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명칭이 단연 그 횟수가 많다. 이야기 소재인 명주 옷감을 중심으로 한 명칭은 ‘선멩디할망’ 1회, ‘췌멩디할망’ 1회, ‘세명주할망’ 1회, ‘설명대할망’ 1회, ‘설명두할망’ 3회, ‘세명뒤할망’ 2회, ‘설명지할망’ 1회 등으로, 이들 소재 중심의 명칭 대부분은 1~3회에 한정되어 그 사용 빈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 1) 주인공 중심 명칭

주인공 중심 명칭은 ‘선문대할망’과 ‘설문대할망’으로 나타난다. 이 두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두 명칭 가운데 우선 순위를 놓고 볼 때 ‘선문대할망’이 ‘설문대할망’보다 앞선다는 점이다. 이는 고문헌의 ‘선마고’(洗麻姑)·‘선마선파’(洗麻叟婆) 또는 ‘사만두고’(沙曼頭姑)가 18, 19세기에 나타나며, ‘설만두고’(雪曼頭姑)는 20세기에 등장한다는 점에 견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설화 채록·연구자에 따라 처음에는 ‘선문대할망’이라 명명하다가 나중에 ‘설문대할망’으로 그 명칭이 바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용준의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셋째, 음운 변화로 볼 때 ‘선문대할망’이 ‘설문대할망’보다 앞선다. 곧 ‘선문대할망>설문대할망’의 변화과정을 거친 것으로, 어중의 ‘-ㄴㄱ-’이 ‘-ㄹㄱ-’으로 변한 결과이다. 이러한 예는 중세 어휘 ‘언마, 현마’에서 현대어 ‘얼마, 설마’로 변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선문대할망’은 설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을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선문대할망’과 ‘설문대할망’은 ‘선문대+할망’, ‘설문대+할망’으로 형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때 ‘할망’은 신의 이름에 붙는 일종의 접미사 역할을 하는 존칭어다. 제주에서는 부엌신을 ‘조왕할망’이라 하고, 아기들의 무사 안녕을 관장하는 신을 ‘삼승할망’이라고 하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문대’와 ‘설문대’는 무슨 뜻을 지니고 있으며, ‘선문대’와 ‘설문대’는 소재 중심의 명칭에서처럼 각각 ‘선+문대(데), 설+문대’로 분석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아직 속단할 수는 없다.

## 2) 소재 중심의 명칭

이야기의 중심 소재는 명주 옷감이다. 이를 반영하는 명칭들은 ‘선맹디할망·세명주할망·세명뒤할망·췌명디할망·설명대할망·설명두할망·설명지할망’ 등으로 나타난다. ‘할망’은 위에서 분석한 바 있다. ‘할망’을 분석하고 나면, 그 각각은 또다시 ‘선+맹디’, ‘세+명주, 세+명뒤, 췌+맹디’, ‘설+명대, 설+명두, 설+명지’ 등으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맹디, 명주, 명뒤, 명대, 명두, 명지’는 ‘명주’(明紬)다.

한편 ‘명주’의 중세 어휘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디, 명디, 명지’ 등으로 나타난다.

- 명디: 紬 명디 듀(『훈몽자회』)  
     명디 깎 뵈며 다회 뵈(織紵組紵 하아)(『소학언해』)  
     그는 명디 설흔 필로 써 사 내니(細紬三十匹購出)(『동국신속삼감행실도』)
- 명디: 피 나거든 보드라운 명디로 스서 업시 호고(出血以帛拭去)(『언해태산집요』)
- 명지: 絡車 명지 올리는 틀(『물보』)

또 『훈몽자회』의 “紬 명디 듀”에 따르면 한자어 ‘明紬’는 ‘명두’가 된다. 곧 ‘명주’를 나타내는 말은 ‘명디, 명디, 명지’ 그리고 ‘명두’ 등이 있는 셈인데, 이 어휘들이 제주에서는 ‘명지’처럼 그대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개음화, ‘ㅣ’모음동화 등의 음운 변화를 거치면서 ‘맹디, 명주, 명뒤, 명두, 명대’ 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남는 문제는 ‘선-, 세-, 췌-, 설-’을 해결하는 일이다. 소재 중심의 명칭 가운데 ‘설명지’가 그 해답을 제시해 준다. 곧 ‘설명지’는 한자어 ‘설면자’(雪綿子)에서 유래한다. ‘설면자’란 ‘눈과 같이 하얀 목화’를 말하는

것으로, 이 목화에서 실을 뽑고 만든 천이 ‘눈처럼 하얀 명주’가 되는 것이다. 곧 ‘설면자’는 목화 또는 목화씨의 뜻에서 더 나아가 그런 실로 짠 피륙인 ‘명주’를 나타내기도 한다. ‘설면자’를 제주에서는 ‘설맹지’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설+명대, 설+명두, 설+명지’의 ‘설’은 한자어 ‘雪’에 해당하며 각각은 ‘눈처럼 하얀 명주’라는 뜻을 지니게 된다.

한편 ‘췌맹디’의 ‘췌’는 ‘세’를 강하게 발음한 것으로, ‘세맹주, 세명뒤’와 같은 계통의 어휘이며, 이때 ‘세’는 ‘가늘다’라는 뜻을 지닌 한자어 ‘細’이다. ‘세맹주’(細明紬)는 ‘가는 명주실로 짠 명주’이니 이 또한 좋은 명주에 해당한다. 또 ‘선맹디’도 ‘질 좋은 명주’라는 뜻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선맹디’를 비롯하여 ‘세-’ 계열의 ‘세맹주·세명뒤·췌맹디’, ‘설-’ 계열의 ‘설명대·설명두·설명지’ 등은 다같이 ‘질 좋은 명주’를 뜻한다.

위험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위 논의가 타당하다고 하면 ‘선문대(데)’와 ‘설문대’도 각각 ‘선+문대(데)’, ‘설+문대’로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문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 IV. 마무리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선문대할망’ 이름은 문헌 속에서는 ‘沙曼頭姑·雪慢頭姑·說麻姑·說麻叟婆·說麻·麻姑’라는 한자 이름이 등장하고, 조사 채록된 설화 속에서는 ‘선문대할망·설문대할망·선문대할망·설명두할망·마고할망·설명지할망·세맹디할망·췌맹디할망·세명주할망·설명대할망·할망·할머니’ 등이 보인다. 또 굿 사설에서는 ‘선맹디할망’과 ‘세명주할망’이 등장한다.

‘선문대할망’은 설화를 처음 채록할 때는 ‘선문대할망’이 주인공의 대표 이름으로 등장하여 ‘설문대할망’과 혼효되어 전승되다가 1980년 후반 문학 작품 등에 ‘설문대할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2000년대 들면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개발되면서 ‘설문대할망’이 세력화함으로써 ‘설문대할망’이 설화의 대표 명칭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선문대할망’의 별칭을 어학적으로 보면, 주인공 중심의 이름과 소재 중심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다. 주인공 중심의 명칭으로는 ‘선문대할망, 설문대할망’이 있으며, 명주 옷감이라는 소재 중심의 이름으로는 ‘선맹디할망·세맹주할망·세명뒤할망·췌맹디할망·설명대할망·설명두할망·설명지할망’ 등이 있다.

한편 ‘선문대할망’과 ‘설문대할망’으로 혼효되어 나타나는 ‘할망’ 이름은 제주학 정립 차원에서도 하나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연구자는 ‘선문대할망’을 대표 이름으로 부르기를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선문대할망’의 별칭들을 다 버리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옛 선인들이 들려준 이야기 속의 ‘선문대·설문대·선맹디·설명두·세맹주’ 따위의 이름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변화의 과정을 거친 변이음들로서 저마다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구좌읍 송당리 허순화의 “우리는 어린 때부터 ‘세맹주할망’. 옛날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으니 ‘설문대할망’이라고 한다.”는 말의 속뜻을 헤아려 보면, 저마다의 고유 이름을 인위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은 우리의 전래 문화를 파괴하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학 정립 차원에서 용어를 통일한다고 해도 예로부터 전해 지던 이름을 하나의 대표 이름 안에 파묻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령 송당을 소재로 ‘선문대할망’ 이야기를 자료화할 때는 ‘선문대할망’을 대표 이름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역에서 전승되던 ‘세맹주할망’이라



는 이름을 이야기 속에서 살려내야만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다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소재를 콘텐츠로 개발해 놓고 지역민들에게 외면을 받는다면 이미 이는 생명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언어는 쓰지 않으면 소멸의 길을 걷는다. 생물의 종 다양성을 인정하듯 언어의 다양성도 인정한다고 한다면, ‘선문대할망’의 다양한 이야기를 보전하는 것처럼, 설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름들 또한 널리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인공 이름에 대한 정확한 어학적 해석과 용어 통일이야말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 고은주(2005), 『신들의 황혼』, 문이당.
- 金尙憲(1998), 『南槎錄』, 『濟州史資料叢書』(1), 濟州道 影印本.
- 金榮敦 외(1985), 『濟州島說話集成』(1),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 김순이(2001), 『제주도 신화·전설』(1), 제주문화.
- 김순자(2004), 『제주학 정립을 위한 기본 용어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 淡水契 편(1954), 『增補 耽羅誌』.
- 문영미(1998), 『설문대할망 설화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송재찬(2007), 『설문대할망』, 봄봄.
- 오성찬(1988), 『구룡이 삼촌 연보』, 『단추와 허리띠』, 지성문화사.
- 이미애 글·김복태 그림(2006), 『선문대할망』, 기탄동화.
- 李成俊(1990), 『설문대할망說話 연구』, 『國文學報』十集,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學科.
- 李源祚(1989), 『耽羅誌草本』,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影印本.
- 任東權(1964), 『선문대할망 說話考-濟州島 民俗에 나타난 巨女談』, 『제주도』(17호), 제주도.
- 任哲宰(1994), 『韓國口傳說話』(全羅南道 篇, 濟州道 篇), 평민사.
- 장영주(2009), 『설문대할망』, 글사랑.
- 張籌根(1957), 『濟州島女神考』, 『濟州文化』(창간호), 全國文總濟州支部.
- \_\_\_\_\_(2000), 『풀어 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 張漢喆 著, 鄭炳昱 譯(1976), 『飄海錄』, 汎友社.
- \_\_\_\_\_, 宋昌彬 譯(1999), 『飄海錄』, 日本 新幹社 影印本.
- 정진희(2009), 『제주도 구비설화 <설문대할망>과 현대 스토리텔링』, 『국문학연구』 19.
- 濟州道(1985), 『제주도전설지』.
- 조현설(2006),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 진성기(1959), 『제주도설화집』, 제주도관광안내소출판부.

- \_\_\_\_\_(2001), 『신화와 전설』, 제주민속연구소.
- 진은진 글·노성빈 그림(2007), 『선문대할망』, 씽크하우스.
- 崔溥(1996), 『飄海錄』, 『錦南集』, 民族文化推進黨 影印本.
- 표선리 원로회(1996), 『表善里鄉土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許椿(1993), 『선문대할망 說話 論考-濟州島 巨女說話의 性格』, 『韓國文學의 通時的 省察』(전규태교수회갑기념논문집), 백문사.
- 현용준(1976), 『濟州島傳說』, 瑞文文庫.
- \_\_\_\_\_. 金榮敦(1980, 1981), 『韓國口碑文學大系』(9-1, 9-2), 韓國精神文化院.
- \_\_\_\_\_(2005),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 \_\_\_\_\_(2008), 『濟州를 創造한 설문대할망』, 디지털 제주시 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net>
- \_\_\_\_\_(2009),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 Abstract

## 'SeonmundaeHalmang' and other names

Kim, Soon-ja\*

This report is written to unify the name of the main character in a famous legend '*SeonmundaeHalmang(GrandmotherSeonmundae)*' as an effort to define the study of Jeju. The character is called in various ways such as '*Seonmundae*', '*Seolmundae*' and '*Semyungju*'.

The names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names according to the character and the materials, silk, which the main character uses in the story. Details are tabulated as follows.

According to the charac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sually SeonmundaeHalmang and SeolmundaeHalmang</li> <li>- It is confusing because these two names are mentioned often in different kind of literature and even research work.</li> </ul>
According to the mate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onmengdeuiHalmang, SoemengdeuiHalmang, SemengjuHalmang, SeolmyeongdaeHalmang, SeolmyeongduHalmang and SeolmyeongjiHalmang</li> <li>- These names are found only 1-2 times in stories.</li> </ul>

I insist to use the term, '*SeonmundaeHalmang*', in the way that the name '*SeonmundaeHalmang*' is more often found in oral tradition and

---

\* Researcher, Jeju National University

is considered as an old form linguistically. In addition, linguistic relations between the names and silk, the material 'SeonmundaeHalmang' used in stories, are mentioned.

**Key Words**

'SeonmundaeHalmang', 'SeolmundaeHalmang', Legend, Main character, Material, Silk

**교신 : 김순자**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8231호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E-mail : sj4765@hanmail.net 전화 : 064-754-2712)

논문투고일 2010. 07. 12.

심사완료일 2010. 08. 02.

게재확정일 2010. 08. 10.